

카리브에 떠오르는 붉은 섬, 혁명, 체 게바라 그리고 쿠바의 도서관



글 | 문 응 선
전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사서
esbety77@hotmail.com

스페인어와 중남미 문화에 대해 문외한이던 지난 시절, 2006년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으로 도미니카공화국에 첫 발을 내딛게 되면서 중남미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올라(Hola,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 하나만 들고 겁도 없이 중남미 세계에 올라 탄 내 무모한 도전이 현재 온두라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함께 사서 분야에 활동했던 후배의 갑작스런 투고 권유에 반가움보다는 놀라움 그리고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 현재 업무로 인해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지난 쿠바 여행 사진을 펼쳐 보며 아직도 아바나 말레콘(Habana Malecon)¹⁾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 이에 용기를 얻어 지난 2008년 쿠바 여행에 만난 쿠바의 도서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체게바라, 헤밍웨이 보다 유명한 호세 마르티

도미니카공화국에서 2년간 단원 생활을 마치고 떠난 쿠바 여행은 정보도 없이 무작정 체 게바라를 느끼고

1) 아바나(Habana)는 쿠바의 수도이며 말레콘(Malecón)은 사전적 의미로 독이지만 바다를 경계로 늘어선 긴 독이어서 쿠바의 명물 중 하나임.



▲ 호세 마르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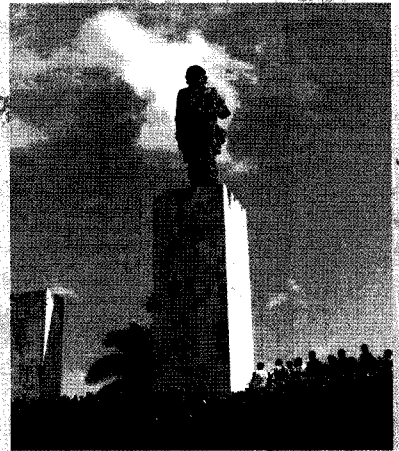
싶다는 생각으로 준비한 여행 중 하나였다. 아직도 많은 여행자들이 쿠바 입국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사회주의 국가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현실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관용여권을 가지고 너무나 당당하게 쿠바에 입국을 했던 사실에 지금도 실소를 금치 못한다. 쿠바는 일반여권으로 입국은 가능하나 관용여권으로 공무가 아닌 이상 입국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쿠바 호세마르띠국제공항. 첫 관문부터 만났던 호세 마르띠는 도로명이며 광장, 학교, 연구소, 국립도서관 이름에도 사용되고 있었다.

호세 마르띠(José Martí)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이며, 시인이자 수필가, 정치가, 역사학자로서 쿠바 뿐만 아니라 중미에서 유명한 학자 중 한 명이다. 필자는 도미니카 공화국 국립문서보관소(Archivo General de la Nación, 한국의 국가기록원 역할)에서 봉사활동을 할 당시 그의 저서를 카드 목록화 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도서관 사서에게 도대체 호세 마르띠가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수필과 역사가 있는지 질문하니 쿠바의 독립운동가이자 유명한 역사학자이며 철학자로서 그의 저서 및 정치이론은 현재까지도 도미니카공화국의 역사를 배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이는 지리적으로 쿠바와 도미니카공화국이 가까이 접해 있으면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것과 카리브 연안 지역의 공통된 음식 및 주거문화, 언어 등 매우 흡사한 카리브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계라바의 정신을 느껴 보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은 사라지고 쿠바의 호세마르띠국립도서관을 방문하면서부터 점점 쿠바의 국민적 영웅 호세 마르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비블리오테까 나시오날 데 쿠바 호세 마르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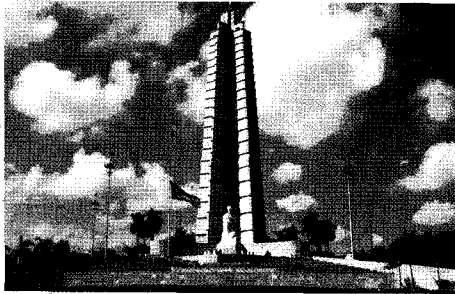
쿠바에 도착 하자마자 수도 아바나를 뒤로 하고 체계바라기념관이 있는 썬파 클라라(Santa Clara) 및 인근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마지막 여정에 있었던 아바나 일정에 하루를 도서관 방문 계획으로 잡았다. 8월 강렬한 태양이 내리 쬐는 도시 아바나는 숨 막힐 정도로 뜨거웠다. 쿠바 여행의 최적 시기는 건기인 10월부터 3월까지라고 들었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가장 더운 8월에 쿠바에 있었던 것이다. 8월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한 달 동안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방문예정이었던 도서관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열람시간이 오전으로 제한되는 도서관도 있었다. 이러한 시기가 결국 쿠바도서관 탐방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말았지만 다행히 호세마르띠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 José Martí)은 부분 개관(대부분의 자료실이 휴가로 인해 닫혀 있었고 참고 자료실 및 열람실만 운영)을 하고 있던



▲ 체계바라기념관 전경



▲ 혁명광장에서 필자



▲ 혁명탑과 호세 마르티 동상



▲ 호세마르띠국립도서관에서 필자



▲ 호세마르띠국립도서관 내부

터라 잠시나마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호세마르띠국립도서관은 플라사 데 라 레볼루시온(Plaza de la Revolución, 혁명광장)을 중심으로 아베니다 데 라 인데펜덴티시아(Avenida de la Independencia, 독립도로)에 위치해 있다. 이 플라사 레볼루시온은 호세 마르띠의 대형 동상이 서 있고 그 옆에 쿠바 국기가 펄럭이고 있으며, 광장 둘레에 정부 부처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체 게바라의 얼굴 동판이 그려져 있는 내무부 건물, 국방부 건물, 중앙 우체국, 국립극장 그리고 국립도서관이 자리를 하고 있다. 작렬하는 태양을 맞으며 도착한 플라사 데 라 레볼루시온, 잠시나마 그 광장에 있었던 순간 1959년 쿠바 혁명을 머리 속에 그려 볼 수 있었다. 매년 노동절인 5월 1일과 쿠바혁명 당시 그 서막을 알렸던 플렌시오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 독재 정권의 '몬카다(Moncada) 군병영' 공격을 기념하는 공휴일인 7월 26일에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가 100만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2~4시간 연설하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내무부 건물에 그려진 체 게바라의 철 동판을 등지고 도착한 호세마르띠국립도서관 외관을 보는 순간 2년 동안 있었던 도미니카공화국 도서관들 보다 웅장한 모습에 놀라며 입구로 들어섰다. 대리석 자재로 내장을 마감한 도서관 내부는 더위에 지친 나에게 땀을 식히고 갈 수 있는 쾌적한 곳이었다. 가방을 입구 보관소에 맡겨 놓고 카메라를 꺼내 든 순간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층의 내부 모습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그 당시 1층에는 특별 전시회가 함께 열리고 있었기에 도서관에서 즐기는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대부분의 사서들이 여름휴가 중인 관계로 어렵게 한 사서를 만나 도서관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당시 부분 개관을 하고 있던 터라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이용이 가능한 자료실은 참고자

료실 하나 뿐이었고 대부분의 자료실은 문을 닫고 있었다. 필자도 한국에서 온 사서라고 소개하고 자료실 열람을 부탁했지만 안된다고 하여 이번 탐방은 사서의 설명만으로 필자의 목마름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 도서관 1층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료실, 참고자료실, 주 열람실이 자리잡고 있고, 2층에는 음악자료실, 예술자료

실, 쿠바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예술과 음악을 사랑하는 쿠바인들의 정신은 자료실 구성 면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흑여 한국장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니 1960~70년대 경 북한에서 기증 받은 천 여권을 소장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도서관에서 만나는 북한장서는 어떤 것일까 궁금해서 자료 열람을 부탁했지만 이것 역시 불가능 했고 대신에 카드목록을 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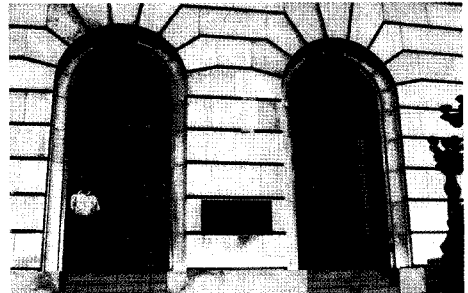
참고열람실을 나와 안내 해 준 사서에게 지난 2년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봉사활동 시 수행했던 도서관 전산화 이야기를 들려주니 쿠바 국립도서관도 도서관 전산화가 너무 필요하다며 쿠바에도 한국의 봉사단원이 와서 도서관 전산화를 함께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탐방은 끝이 났다.

비블리오페까 나시오날 데 씨엔시아스 이 테크니까

“쿠바, 베네수엘라 통해 초고속 인터넷 가동”, 2011년 2월 신문기사에 기재된 쿠바의 초고속 인터넷 가동 소식은 필자에게 신선한 충격이고 새로운 물결이 지금 쿠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 2008년 방문 당시 쿠바는 개인 휴대폰 사용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어 몇몇 지식인 및 공무원, 학자 등이 휴대폰 사용을 시작했으나 고가품이기 때문에 대중화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쿠바 여행을 준비하면서 모든 여행자들이 내게 하는 말은 “쿠바에 있는 동안은 잠시 세상과 단절 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쿠바에서 만큼은 여행객이라 할지라도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터넷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고급 호텔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접속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지금 소개하는 국립과학기술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 Ciencias & Técnica)에서는 세계와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여행객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수도 아바나의 상징적인 건물 까베톨리오(Capitolio)는 과거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됐던 건물이지만 현재는 국립과학재단과 국립자연사박물관 및 국립과학기술도서관이 있다. 이 도서관은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쿠바의 도서관이었다. 까베톨리오 건물 중심으로 아바나 구시가지, 베다도(Vedado) 신시가지 및 말레콘 접근이 용이한 관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유독 이 국립과학기술도서관에서만 인터넷 사용을 가능케 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우체국에서 쿠바인들의 인터넷 접근어 허용된 관계로 2008년 방문 당시보다는 많은 쿠바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방문한 호세마르띠국립도서관에서의 도서관 탐방 실패의 이유처럼 국립과학기술도서관도 여름휴가로 문을 닫아서



▲ 국립과학기술도서관



▲ 까베톨리오

또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오직 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 전경을 카메라에 담는 것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앞으로 쿠바를 방문하게 될 사람들에게 8월 도서관 탐방은 피해야함을 알릴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심정으로 부족한 글이나마 남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말레콘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도서관



▲ 까사 데 라스 아메리카스



▲ 헤밍웨이가 자주 가던 선물집



▲ 거리의 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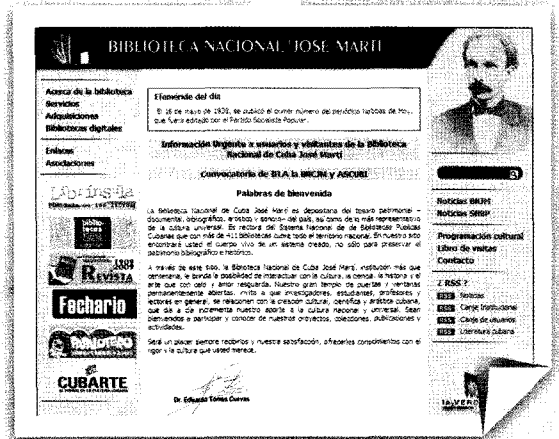
쿠바 공공기관의 8월 한 달 간 휴가가 필자의 도서관 탐방 일정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국립과학기술도서관을 뒤로 하며 말레콘을 향하는 길 위에서 쿠바인들의 노동자를 위한 한 달 휴가 정책이 부러울 따름이었다. 이번 여행에서 계획했던 쿠바도서관 탐방은 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했지만, 양적으로 많은 도서관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말레콘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비블리오떼까 까사 데 라스 아메리카스(Biblioteca Casa de las Américas)와 아바나 비에하(Havana Vieja, 구 시가지)에 가는 길에 만난 비블리오떼까 루벤 엠 비제나(Biblioteca Rubén M Villena) 등 길 위에서 만난 새로운 발견을 통해 다음에 쿠바를 다시 오게 되면 8월이 아닌 시원한 11월 또는 2월로 여행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 땀 좀 더 진중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준비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또한 호세마르띠국립도서관 사서의 바람처럼 미래에 쿠바와 한국과 수교가 이뤄진다면 봉사자 또는 협력자로서 쿠바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 마음 속에 자리 잡았다. 쿠바의 혁명처럼 쿠바 도서관 혁명에 한국의 손길이 닿길 희망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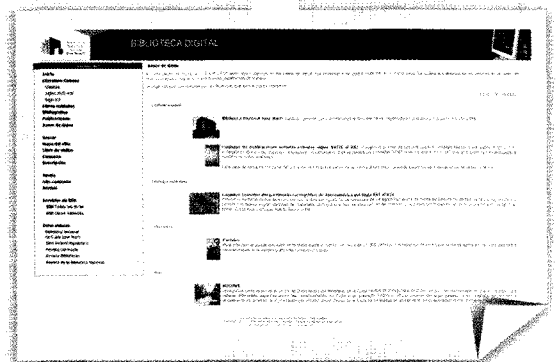
현재의 쿠바도서관

필자가 3년 전 방문했을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쿠바 도서관 모습이 궁금하여 포털에서 쿠바 호세마르띠국립도서관(<http://www.bnjm.cu>)을 검색해 보았다. 2008년 쿠바에 갔을 때 안내 해 준 사서의 이야기로 아직 바세 데 다토스(Base de Datos, DB구축)를 구축 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말과 함께 그 당시 OCLC를 이용한 목록을 진행 중이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현재 쿠바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웹상에서 DB목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자책과 전자책인 등 여느 해외 도서관 못지않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호세마르띠국립도서관 전자도서관(<http://bdigital.bnjm.cu>)은 2011년 5월 현재까지 17명 작가의 130편의 작품인 쿠바 고전 문학을 제공하고 있으며, 17~19세기 46명 작가의 356편의 문학작품과 20세기 7명 작가의 33편의 문학작품 소개를 제공하고 있다. 쿠바의 대표 문학 서지정보, 호세마르띠국립도서관의 출판물 정보, DB목록 등이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 호세마르띠국립도서관 홈페이지 화면



▲ 호세마르띠국립도서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화면